

'봄꽃의 제왕' 왕벚꽃의 고향은 제주

제주 봉개동 자생지와 신례리 자생지 각각 천연기념물 제159호와 제156호로 지정 보호

데스크승인 2014.04.09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봄을 맞아 꽃들의 제전이 한창이다. 요즘 피어나는 꽃 중에서 제왕을 따지자면 단연코 벚꽃도 빠지지 않는다. 최근 제주왕벚꽃축제도 열려 도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터이다.

왕벚꽃이 피는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바로 제주도로, 이 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喬木)이다. 제주시에서 제1횡단도로(5·16도로)를 따라 서귀포로 갈 때 12km 지점(한라생태숲 입구 맞은편)에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가 있다. 1964년 1월 천연기념물 제159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이곳에는 왕벚나무 3그루가 약 50m 간격을 두고 자라고 있다.

이들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3그루 중 가장 큰 나무 앞에는 천연기념물을 알리는 비석이 안내판과 함께 서있다. 이 나무는 세 줄기로 이뤄졌는데, 원래 중심에 큰 줄기가 있었는데 벌채된 후 옆에 있던 세 줄기가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 11m에 수관이 안정된 모습이다.

또 다른 한 그루는 줄기 중 하나가 풍해를 입어 옆으로 기울어진 후 다시 하늘로 솟은 수형이다. 높이가 약 11m인 이 나무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10여 개의 지춥대가 설치돼있다.

나머지 한 그루는 이들 나무의 서남쪽 방향 숲속에 있는데, 높이는 10m 정도로 가장 작다.

이들 나무와 함께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에도 천연기념물 왕벚나무가 자라고 있다. 서귀포시 수악교 남쪽 해발 600m 지점의 5·16도로에서 서쪽으로 약 200m 거리에 서 있는 왕벚나무다. 이 나무는 1964년 1월 천연기념물 제156호로 지정됐다.

이들 왕벚나무의 자생지는 1908년 4월 서귀포시 서흥동 소재 성당의 신부인 프랑스인 타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타케가 왕벚나무 표본을 독일 베를린대학 코헤네 박사에게 보내 감정을 실시한 결과 제주도가 왕벚나무의 자생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연 상태로 생육하고 개체 수가 많아야 하며 변이가 다양해야 하고 어린 나무부터 늙은 나무까지 모두 있어야 한다는 나무 자생지의 조건을 제주가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왕벚나무는 수적으로 매우 적은 희귀종으로 식물지리학적 연구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종이 많아야 한다는 점도 자생지의 조건 중 하나로, 제주에는 울벚나무, 산벚나무, 잔털벚나무, 섬개벚나무, 한라벚나무 등 왕벚나무의 사촌뻘 나무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제주에서 '사오기' 또는 '사옥'이란 이름으로 불려온 벚나무는 보통 붉은 빛의 꽃을 피우고 꽃잎은 백색 계열이다. 예로부터 목질이 단단하고 색이 아름다워 귀중한 가구재(家具材)로 많이 활용되면서 과거에 아름다워 벚나무들이 벌목돼 사라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